

전남경찰, 1년간 방역 위반·방해 224명 입건... 16명은 구속

‘격리 이탈·행정명령 위반·역학조사 방해’ 61명 검거

마스크 관련 폭행·업무방해 사범 35명 중 2명 구속

마스크 사기·매점매석 159명...허위사실 유포 20명

코로나19 확산이 이어진 지난 1년간 전남에서 감염병 예방법을 위반하거나 또는 마스크 관련 폭행·거래 사기 등 범행을 저질러 방역망 구축을 방해한 224명이 입건됐다.

16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전일까지 코로나19 관련 수

사를 통해 280명(424건)이 검거됐다. 이 가운데 내사 종결 처리를 제외하면 224명이 형사 입건됐다. 입건자 중 16명은 구속됐다.

감염병 예방법을 위반한 사례는 61명(54건)이었다. 유형 별로는 격리 위반이 36명(34건)으로 가장 많았고, 행

정 명령 위반은 16명(11건), 역학조사 방해 5명(5건), 기타 4명(4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이들 중에는 격리 지침을 위반하고 구직 활동 차, 취업 알선자들과 서울을 다녀온 자가 격리 대상자도 있었다.

밤 10시 이후 운영 중단 행정 명령을 통지 받은 뒤 손님 6~7명에게 주류·안주를 판매한 유흥주점도 적발됐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집회에 수십 명을 인솔한 뒤 방역당국의 ‘참가자 명단 제출’ 요구를 거부하다 검거된 사례도 있었다.

마스크 착용 시비로 폭력 행위를 휘두른 35명(35건)도 검거됐다. 혐의 별로는 폭행·업무방해 등 28명(28건), 특가법상 운전자폭행 4명(4건), 기타 3명(3건) 등의 순이었다.

이 중 마스크를 턱에 걸친 채 버스에 탄 뒤 말다툼을 벌여 승객과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마스크 없이 면사무소 민원실에 들어와 방역 목적으로 설치한 투명 가림막을 파손한 취객도 있었다. 이들 2명 모두 구속됐다.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마스크를 놓고 판매 사기 또는 매점 매석 행위를 벌인 이들도 무더기로 붙잡혔다. 마스크 판매 사기 피의자는 60명

(248건) 중 13명이 쇠고랑을 찼다.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에 마스크를 비롯한 물품을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게시, 피해자 595명으로부터 2억7200만 원을 가로챈 피의자도 있었다.

마스크를 대량으로 사들여 거래 질서를 어지럽힌 매점 매석을 한 99명(66건)도 검거됐고, 이 중 1명은 구속됐다.

확진자 동선·시설 폐쇄와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20명(16건), 개인 정보를 무단 유포한 4명(4건)도 경찰에 적발됐다.

전남경찰은 코로나19 관련 수사를 위해 신속대응팀 841명을 꾸려, 모든

수사 역량을 집중 투입한 성과라고 평가했다.

이 밖에도 전남경찰은 지자체 등으로부터 역학조사 대상자 소재 또는 위치 정보를 확인해달라는 행정 응원 요청 77건을 받아,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전남경찰 관계자는 “코로나 19 관련 각종 불법 행위는 국민 불안과 사회 혼란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다”며 “단호하게 대응하겠다. 지역민의 각별한 유의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김정환기자



쓰레기 태산, 바빠진 재활용 선별장 16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장지동 송파자원순환공원 재활용 선별장에서 직원들이 일회용 재활용품 선별 작업을 하고 있다.

‘광주 거리두기 하향’ 실내공간 감염 우려...방역수칙 철저히

“방역책임자 지정해 환기 등 수시 점검 필요”

광주지역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에서 1.5단계 하향됨에 따라 방역당국이 실내시설 감염이 우려돼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광주시 방역당국은 16일 오후 광주 시청 브리핑룸에서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최근 거리두기가 2단계에서 1.5단계로 완화됨에 따라 코로나19 감염 위험요인이 증가했다며 실내체육시설과 무도회장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광주에서는 지난해 배드민턴과 조기 축구, 수영장, 유흥주점 등 실내공

간 활동을 통한 코로나19 감염자가 잇따라 발생했다.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실내공간 이용이 어려워 감염자가 집단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지난 15일 하향되면서 이용이 가능해진 상황이다.

수도권의 경우 지난달 기준 탁구장과 태권도장 등 실내체육시설을 통해 251명이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방역당국은 “거리두기가 1.5단계로 낮아지면서 실내 영업장 방역수칙이 중요해졌다”며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격한 운동을 하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

이 불가능해 비말을 통한 감염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실내공간도 겨울철이어서 난방 등의 이유로 환기를 하지않아 적발되는 사례도 빈번하다”며 “실내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고 1시간 이상 머물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수영장 등 물을 이용하는 실내 시설은 샤워실과 탈의실 등에서 감염이 발생한다”며 “실내시설 종사자들은 방역책임자를 지정해 방역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기동취재본부

‘날아든 야구공, 5세 딸 머리 6주 부상’ 고소...경찰조사

훈련장 안전 울타리 넘어 공에 유치원생 머리 다쳐

“안전 설비 정비 부실 탓” 학교장·야구부 감독 고소

야구부 학생이 쳐낸 야구공에 맞은 유치원생이 머리를 다친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야구부를 운영하는 학교 측의 안전 관리 소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16일 광주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광주 모 유치원생 A(5)양의 부모가 ‘유치원과 인접한 초등학교 야구부 훈련 도중 날아든 야구공에 딸이 머리를 맞아 다쳤다’며 이 학교 교장과 야구부 감독 등 2명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했다.

A양의 부모는 최근 경찰에 제출한 고소장을 통해 “지난해 9월24일 오후

4시에 남구 모 초등학교 야구부 훈련장에서 6학년생 타자가 방망이로 쳐낸 야구공이 안전 울타리를 넘어 딸의 머리에 맞았다. 울타리 등 안전 설비를 제대로 점검·정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학교 야구부 훈련장과 인접한 병설 유치원에 다니는 A양은 하굣길에 이런 사고를 당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A양은 머리 부위를 크게 다쳐 전치 6주의 진단(머리 일부 부위 함몰)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시 이 초등학교 야구부는 훈련장에서 연습 경기를 하고 있었던 것

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통상적인 고소 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 학교 교장과 야구부 감독을 입건했다.

또 학교 측이 제출한 안전 울타리 규격 관련 서류와 관계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학교 관계자는 “학교에서 다친 점에 대해 안타깝고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교육청과 연계해 울타리 등 야구장 모든 부분을 막는 그물망 공사를 하겠다. 피해 아동에 대해서도 후유증 재발 부분까지 고려하는 등 관련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김민정기자

신안·무안서 교회발 10명 확진...지도 70대 부부와 접촉

전남 신안과 무안에서 교회발(發) 코로나19 확진자가 10명 추가 발생했다.

16일 신안군 등 방역당국에 따르면 전남 지도교회와 관련해 신안 7명(전남 785~791번), 무안 3명(전남 782~784번) 등 10명이 코로나19 양성판정을 받았다.

이들은 설 연휴 마지막날인 지난 14일 확진판정을 받은 신안 지도에

거주하는 70대 부부(전남 777.778번)와 교회 등에서 접촉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무안의 확진자 3명도 70대 부부가 다닌 지도의 교회 신도로 전해지고 있다.

70대 부부는 설을 앞둔 8일 고향을 방문한 전북 완주에 거주하는 아들에 의해 감염됐다.

신안군과 무안군은 지도와 증도,

임자도, 해제면 등 주민들의 외출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하고, 확진자에 대한 동선 등 역학조사에 나서고 있다.

신안군 관계자는 “증상이 있거나 감사를 받기를 원하는 주민은 보건소에서 감사를 받길 바란다”면서 “이동 동선은 추가로 알려겠다”고 밝혔다.

신안·이택주기자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탈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윤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

